

절에 비가 샌다

전국 소규모 사찰·암자 무방비 법당누수-축대붕괴 등 위험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일 부 사찰의 법당이 비가 새는 것은 물론 축대 담장 등 붕괴 위험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급격한 장마는 계절성 집중호우와 강풍이 예상되고 있어 적지 않은 손해가 우려되고 있다.

6월 24일부터 북상한 장마전선은 단숨에 1백mm가 넘는 호우를 쏟아내며 '열노 장마'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서울 S사의 경우 요사채에 비가 새 5개의 물통이 곳곳에 받쳐놓는 소동을 벌였다. 경복궁 사도 건물도 노후로 10여년전부터 장마철만 되면 '장마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웅전 지붕을 비닐로 덮고 페타이어로 강풍에 대비하고 있지만 더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다. 전남 D사의 나한전은 참배를 못할 정도였다. 이밖에 노후된 축대와 담장 유실, 산사태 등의 우려가 있는 사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 이들 사찰들은 대부분 비닐과 페타이어, 모래주머니 등으로 지붕을 덮는 응급조치에 머물고 있어 폭우, 강풍 등 돌발적인 상황에는 무방비 상태여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전통사찰이나 규모가 큰 사찰의 경우는 다소 나은 편이지만 소규모의 고찰과 암자의 경우는 장마 대비가 상당히 소홀한 실정이다. 누수사찰은 장마철이 1개월밖에 안된다는 안이한 생각과 재정적 어려움을 들어 보수공사를 게을리 해 온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장경각 기와보수불사를 하고 있는 해인사는 경관과 지붕에 2중덮개를 하는 등 수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중앙지하사님은 6월 23일 신축중인 김포화사를 방문 "장마철 수해에 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종근 기자 (gajm@buddhania.com)

조계종-YMCA-대한성공회-MBC 등

'떡거리나누기운동협' 발족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YMCA, 대한성공회 등은 6월 30일 서울 YMCA에서 '떡거리나누기 운동협의회'를 발족시켰다.

'떡거리나누기 운동협의회'는 시민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식품생산·유통업체 및 대형 음식점 등의 참여를 유도해 음식공급처를 확보, 음식은행 역할을 할 계획이다. 확보한 음식은 회원단체 즉 네프워크를 통해 지역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수혜조직에 증계하며 음식나눔센터의 시범운영

으로 바람직한 운영원칙 및 방식을 공동모색할 방침이다. 이 협의회는 또 종교시설·사회복지기관 등과 함께 시민자원봉사자를 조직, 교육해 범시민적 '사랑과 나눔의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승화시킬 예정이다. 이와함께 음식을 유통기반에 대한 현재의 법·제도 개선 및 외국의 '자선법'과 같은 기부자보호법 제정 등 정책제시 활동도 펼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대불청 집행부지구장 '갈등'

사단법인 정관등록 지구장 의견권 박탈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대)가 6월 13일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으나 헌법 회칙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는 법인정관을 둘러싸고 회장단과 회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회원들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거주하는 회원 7만명이 이사로 선임되고 각 지구장들은 의견권 없는 이사급으로 분류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 회칙에 따르면 이사는 총 43명이며, 각 지구장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인 등록을 도맡아 온 대불청 회장단은 올해 1월 열린 총회에서 법인등록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 5월 이사회에서 법인정관과 회칙을 공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정관 내용이 언급된 기억은 없다" "이미 결정된 법인정관을 회원들에게 추진을 받는 것은 잘못" 등은 법인정관에 얽힌 '중앙'과 '회원' 간의 이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노후로 인해 지붕에 비가 새 임시방편으로 비닐로 덮고 모래주머니로 강풍에 대비하고 있는 서울의 한 사찰.

조계종 29개 포교사팀 구성

복지·직장등 전문화

조계종포교사단(단장 성타스님)은 6월 27~28일 화성신홍사에서 1백30여명의 포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교사 전문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직장, 사찰 분야의 전문포교사팀을 구성했다. 이로써 어린이 교도소 등 분야별로 29개 포교팀이 구성됐다. 특히 장의엄 불림이 서울지역에 2팀, 부산 대

전지역에 각 1팀이 구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교사단은 이번 워크숍으로 포교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자평하고 이후 각 포교팀이 실제 가동되도록 지원하는데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포교사단은 8월까지 포교활동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침서 형태의 포교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종교인협 통일축전준비위 결성

북한주민접촉 신청도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스님)는 북한측이 제안하고 정부가 허용한 '8·15 통일대축전' 개최를 위해 4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북추진본부 준비위원회

(이하 통일축전준비위)' 결성식을 가졌다. 통일축전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측과의 사전협의의 위해 6월 22일 통일부에 종교인협의회 대표단의 북한 주민접촉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nia.com)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조계종, 1사찰1학교 자매결연등 추진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가 불교계에서도 발족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율주스님)은 사회부, 포교원,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자비의 전화와 연계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본부를 추진하고 있다.

총무원, 파라미타 등은 전국 2만여명에 달하는 불교학생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동본부의 연락처가 담긴 버튼을 배포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상담에 나설 계획이다. 상담은 자비의 전화(02-737-7374)를 비롯해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j378, 나우누리 자비 등 컴퓨터 통신으로도 가능하다. 운동본부는 1사찰 1학교의 자

매결연을 통해 체육행사, 야외법회 등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찰별로 주변 학교 불교학생회와 연계해 학교 주변 자율방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운동본부 플래카드 걸기, 경승·검찰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정화활동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운동본부 발대식은 24일부터 열린 파라미타 연합법회에서 가질 예정이다.

한편 총무원은 6월 29일 직할교구 주지 회의에서 이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각 사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nia.com)

박물관 민영화 '취소'

문화장관, 대통령 보고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추진 실적과 계획' 보고를 통해 국립박물관 등 10대 국립문화기관은 공공성을 고려해 민영화하지 않겠다

고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신장관은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바라는 여론을 감안, 대신 △경비·청소·전산·안내업무의 민간 위탁 △진문인 경영제 △예술 감독제 도입 등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nia.com)

승가원 황성 재활농장 숙소 완공

소쩍새 12명 '이주'

승가원(이사장 지하)은 지난 6월 23일 황성종합복지타운내에 재활농장 숙소를 완공하고 소쩍새 마을 가족 12명을 이주시켰다.

2개동으로 분리된 농장숙소는 복지타운 건설을 위한 사무실(A동 26평)과 숙소(B동 60평)로 꾸며졌다. 재활농장장 남도스님과 직원, 가족이 거거할 숙소는 총 7개의 방과 샤워실, 세면장, 식당 등으로 이뤄져 있다.

12명의 가족은 40~50대의 농사경험이 있는 정선지체 2급 등 경미한 장애인들. 농사일을 통해 자존감이 필요치 않다. 다만 관심을 갖고 이렇듯 농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농장장님을 주축으로 12명의

가족을 도와 8천여평의 농장에서 특용작물 등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게 된다. 김재경 기자

복지 정보센터 설립

정부 최고 1억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종교계가 벌이고 있는 복지·정보지원 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종교계 복지활동정보 지원센터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종교계의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을 16일까지 받아 지원규모를 결정할 뒤 사회복지사업기금 예산편성 및 기금사용계획서 심의절차를 거친 후 유효한 기금부터 지원(최고 1억원)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뉴스 & 뉴스

국제포교사 해외연수

국제포교사 해외연수가 5일부터 11일까지 연동불교국제포교사 주관으로 싱가포르에서 실시됐다. 연수에는 4일 국제포교사로 임용된 23명 가운데 박상필 불교방송PD, 이현정 장수연 불교방송어나운서 등 8명이 참가했다. 정성운 기자

전불련 8·15사면 논평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원)은 2일 '8·15 사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더이상 양심수가 양산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현행법률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조건없는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촉구했다. 도필선 기자

금선사 사태 항의법회

금선사사태 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정각)는 1일 구덕운동장앞에서 검찰의 금선사 법당 난입에 대한 1차 항의법회를 가졌다. 이날 항의법회는 검찰 청사까지의 가두시위로 이어졌다. 수습대책위는 앞으로 타 지역의 힘을 모으는 항의법회를 지속적으로 벌이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청소년지도교사 수련회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해남 대둔사에서 '부산불교 청소년 지도교사 수련대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대회에서는 전국교사총연합회 부산지부 창립을 축하하고 청소년지도교사단을 조직해 청소년조직 활성화를 꾀할 것을 결의했다. 천미희 기자

백혈병 신도 돕기 운동

부산 법연사(주지 조연)가 백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신도 전순욱씨 돕기 운동을 시작했다. 법연사는 2일 서면 트레싱스 커피숍에서 '전순욱씨 생생한 활자구구 하투잡'을 열어 모금된 1천여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법연사는 앞으로 통장을 개설해 지속적인 모금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대구불교사회복지회(회장 성덕)는 7일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98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는 봉사활동시간 1백시간, 5백시간, 1천시간이 각각 넘는 봉사자에 대한 시상식 등이 펼쳐진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nia.com)

해강스님 가처분신청 접수

태고종 총무원으로부터 2월 23일 세민스님의 순천 선암사 진입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체탈도침 및 제적징계 처분을 받았던 해강스님 등 10명이 제출한 '관리행사 방해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사건번호 98카합790호)이 순천지방법원에 받아들여졌다. 임태대 기자 (ytlm@buddhania.com)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뿌리 뽑힌다.

CELL FORTE (셀 포르테)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에 의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 등에 대한 멕시코 국립대학의 임상연구 결과 관절염, 관절통, 중풍 기타 염증 등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관절염, 노화 등의 면역기능 강화에 의한 효능이 임상실험 결과 60명을 상대로 98% 이상 효과가 입증되었다.

셀 포르테에 대한 석학들의 증언

- 미국 Jame 박사 "셀 포르테는 2억 2천 이상되는 미국인들의 관절염을 치료하는데 주목할만한 물질이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 미국 Corade 박사 "셀 포르테는 현재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변형성 관절염의 치료에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기타 Iowa 대학 및 Wabash 대학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
- 셀 포르테는 현재 세계 33개국에 수출중

한달분(180정) ₩220,000 / 2개월분(360정) ₩400,000

사례문

이영래(57세, 북성제계협회 트레너) 분은 세계계피온 문성길, 정정구, 김용강등 많은 권투선수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 다리 등에 만성신경통과 관절염으로 20여년간 고통을 받으면서 한약과 양약을 쓴다는 약은 다 써 보았지만 효과가 보지 못하여 한 때는 지도자의 길을 포기할까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신문광고에서 셀 포르테가 좋다는 광고를 보고 속은 셀지고 2개월분을 구입하여 복용중에 처음에는 진통이 심해서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함께 복용하여야만 했습니다. 약 1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차도가 나타났고 10개월을 계속 복용하고 부터 저의 몸은 정상을 되찾았고 현재는 거짓말처럼 아픈증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세계 챔피언을 만들고자 맘을 졸이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저와같이 고통을 받고있는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자 이 사례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저의 건강을 찾아준 삼천실업에 감사드립니다. ▶ 이영래

정보원 서울:(대) 790-8200
본사: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08번지

※ 셀 포르테의 자세한 안내책자는 무료를 보내드립니다. 주소록 알려 주십시오. (동기, 소포우송)

실용신안등록 97-18095

향로에 넣는 유리구슬

향운정주

향운정주는 순수 유리를 녹여 진원(眞圓)으로 만든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이나 모래를 대체한 제품입니다. 향운정주는 그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향운정주는 향이 잘 꽃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고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의 방출로 인체에 유익합니다. 또한, 법당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1Kg
● 1Kg x 5개

● 향운정주 SET (향운정주, 침차향로, 고급함)

● 주식회사 세호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7-30
전화 : (02) 272-8886(대)
팩스 : (02) 278-6675

전국 취급점 모집 중

“향운”은 향운공(香雲恭), 즉 향을 피워 공경한다는 뜻입니다.